

# 뉴스초점

## 북한 「개성공단」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How is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Proceeding?



글 / 鄭武鎔  
(Chung, Moo Yong)  
도시계획기술사, 공학박사,  
대한콘설탄트 부회장,  
연세대/경원대 강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장.  
E-mail: dhconsul@chollian.net

### 북한 「개성공단」 성공 어떻게 볼 것인가?

#### • 「개성공단」 사업은 6년 만에 결실

「개성공단」 사업은 판문점 휴전선에서 8km 떨어진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공업단지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으로 총 2,000만평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은 남북경협 3대 사업 중 하나인데 금강산관광,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이 경제협력사업이다.

경위를 보면 이 사업은 '98년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끌고 북으로 가서 북한의 고위층과 남북경협에 관한 담판이 그 시작이다.

대규모공장의 후보지를 수차례협상 끝에 개성으로 정하고 2002년 11월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했다.

수차례 협상을 통해 첫째 기업활동의 자유로운 보장, 둘째 이중과세방지, 셋째 투자보장, 넷째 남측인력의 신변안전문제에 관한 합의도 금년(2004년) 초까지 마쳤다.

우선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공사를 착수했고 자금조달 및 분양권은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고 현대아산은 시공만을 맡는 식으로 사업방식이 이루어졌다.

#### • 「개성공단」은 북한의 시장경제 시험대

북한의 최고위층도 '서울 긴 최적의 공단 특구'를 인식했기 때문에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특구」로 지정했

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경제협력력을 바탕으로 남북군축계기까지도 될 것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험대에 불과하다.

- 고려 500년의 수도 개성시에 500만평, 개성공업단지 800만평, 신도시 700만평, 총 2천만평에 이르는 지역을 50년간 특별구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남한(현대아산)에 준 것이다.

이 2,000만평이 개발되는 8년 후면 입주기업이 2,000개 업체 장래 인구가 45만명, 고용인구가 25만명 연간 150억불의 매출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1년에 모자라는 쌀이 200~300만톤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5억달러 정도니까 150억달러 매출액 중 5억 달러는 총 매출액 3%에 해당하므로 식량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면 하는 반면에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개방화가 북한 사회에서 시험대가 되었으면 한다.

#### • 「시범공단」 입주선정, 지원대책은?

특히 2004년 5월 2만 8천평의 「시범공단」에 희망입업체 136개 중 치열한 경쟁 끝에 15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중에 7개 업체가 금년(2004. 9)에 남북경협 사업승인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알기로는 개성공단분양 땅값이 평당 15만원으로 남한보다 3.4배 싸지만 부지 1,000평일 경우 1억 5천만원이다.

공장신축비용 평당 100만원이 든다고 보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무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을 담보로 잡거나 남북협력기금에서 240억원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 「개성공단」의 입주희망업체의 치열한 경쟁이유

2004년 6월 실시된 2만 8천평 규모의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때 15개사 모집에 136개사가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1단계 사업(100만평)에 입주계획 공장은 300개사인데 이미 3,000여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개성공단」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국내의 미분양공단도 평당 6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평당 15만원이면 훨씬 싸다는 이유 때문일까?

섬유, 신발, 완구, 시계 등 노동집약업종들의 입주 희망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의 기대감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낮은 임금을 꼽고 있다.

개성공단의 월평균 임금은 58달러로 중국의 80~100달러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국내 수준에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이다.

남북협상에 의해 노조도 없고 인건비도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 성공(成功)의 비결(秘訣)은 무엇인가?

#### • 장점보다는 4가지의 위험요소 면밀히 따져봐야

개성공단을 “장밋빛”만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개

성공단 장점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각종 위험요인부터 면밀히 따져 보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첫째, 북한의 관세장벽으로는 우선 판로 확보가 문제인데 메이드인 북한(made in DPRK)이 돼 미국수출도 어렵다.

미국은 대 적성국가의 제품에 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20~30배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물자 반입제한이랑게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바세나르(WA)협정에 따른 걸림돌이 있다.

1997년 33개국이 합의한 협약으로 「첨단 전략물자나 기술이 분쟁지역·테러지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협약이다. 전략물자로 되어 있는 품목은 1,620여개로 고성능 컴퓨터 등도 포함되어 북한에 반입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한이 합의된 물자 즉, 바세나르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들만 반입이 가능하다.

셋째, 남북관계가 여전히 불투명하여 밝게만 보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불투명한 남북관계와 북한·미국관계도 변수다.

넷째, 정치적 외풍의 취약성 문제인데 이는 정치, 경제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개성공단」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 • 성과기대의 미지수는 여전히

남북경협사업은 '90년 초반부터 개별공장·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괄목한 성과를 낸 기업이나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부지매입, 노동력은 싸지만 입주의 부담에는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공장부지매입, 공장신축비용면에서는 분명 「개성공단」입주부담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58달러 수준으로 싸지만 생산성이 남한에 비해 낮고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한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식 생산방식을 교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뉴스초점

## 선정기준이 불만과 반발의견

중소기업체의 불만은 '국내에서도 잘되는 업체들보다 국내에 선 힘들지만 북한에 가면 경쟁력도 있는 수많은 노동집약적 기업이 개성에 가야한다'는 것이 국내 산업구조를 첨단화 하면서 사양산업도 생존의 길을 찾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 아닌가?

반면에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사업계획, 회사가 건설한지의 여부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고 북한측도 정보기술인 IT산업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바란다고 한다.

결국 이 문제는 개성공단사업을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남북한 경제 구조조정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이는 북한이 당장 소화하기 어려운 첨단 업종보다는 경공업 중공업 첨단공업순서로 경제발전단계를 거치는 게 길게 보면 남·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남·북한 경제의 이행사항 비교

남북경협논의는 7.4 남북공동성명('72. 7. 4), 6.23선언('78. 6. 23), 남북정상회담(2000. 6. 13)까지 경협 30년사는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우리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에 눈을 돌렸다. 동유럽, 중국, 옛소련에 무역관을 설치하면서 「선(先)경제-후(後)정치교류」의 외교전략이었다. 이 동구권 진출이 북한과 물꼬를 트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7.7선언('88.7.7)을 통해 남북교류를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기도 했다.

3개 주요 경제협력사항을 보면

- ① 금강산관광은 남한이 총 9억 4천만달러를 독점대가로 지급했고, 관광객 1인당 50달러를 입산료로 지불했다. 북한은 현대에 금강산 관광지구 독점권을 제공했다.
- ② 개성공단 개발은 남한은 기반시설에 1591억원을 투입 철거보상비를 지급했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북한은 총 2,000만명의 공업단지 부지를 제공하게 되고

군사시설(개성공단) 등 지장물을 철거했다.

- ③ 철도·도로연결사업에서는 남한은 궤도부설과 도로포장 등 총 1억 5천만달러를 지원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개방했다는 것을 비교해 보았다. 그 외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사업에는 남한은 관련 장비 및 목목재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현지 공동조사 및 홍수예비시설 설치에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정치, 군사문제에서는 남한측은 많은 조치를 했는데 반해 북한측의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민간 부문에서 경협에 협의를 먼저 이루어냄

최근의 일련의 주요 3개의 사업들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사업인 셈이다.

'98년 소떼를 몰고 방북한 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 때 합의한 서해안 공단 개발인 「개성공단」사업들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 이는 민족적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의 '90년대에 인천-남포간 항로가 열리고 '92년에 대우의 임가공공장이 북한의 남포에 지어지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경협노력은 계속 진행되었다.

## 성공한 「개성공단」 '황금의 땅'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건설, 경영을 위한 출퇴근 편리를 위하여 서울의 광화문에서 개성공단까지 80km를 셔틀버스가 2004.9.20일부터 현대아산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 매일 두 차례씩 왕복 운행되고 개성공단에 입점하는 은행도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미국도 북한이 경제개혁을 진척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개성공단의 남·북경제협력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남북민족공동도 북한 내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개방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민해야할 3가지가 있는데

① 경제활성화 문제 ② 노동분쟁(노사갈등) ③ 남북긴장 문제지만 잘하면 2가지는 자동으로 해결되겠지만 남북경협의 「개성공단」이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남북 긴장문제는 더욱 해소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관심사업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설립을 허가(통일부승인 2001.6.5)하여 2005년 9월에 개교하는 평양과학기술대학(100만㎡ 학교규모) 등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북한의 첨단기술분야까지 인재를 교육시켜 신사고의 개방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에 한발자국씩 접근되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이 기업들에게 '황금의 땅'으로 성공되길 바라고 '민족공영의 길'이라는 사명감을 경험정신으로 극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개성공단의 추진경위

- 1998년 6월 :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소떼 몰고 - 뉴스의 초점
- 2000년 8월 : 개성공단 개발합의서 체결
- 2002년 11월 : 북한개성공업지구법 발표
- 2003년 6월 :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 2003년 8월 : 224명 중소기업 대표단 개성방문
- 2004년 5월 :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개 선정 부지조성공사 완료
- 2004년 9월 : 개성공단 입주 7개 기업 남북협력사업 승인
- 2004년 9월 : 9월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 개성공단까지 셔틀버스운행

(원고 접수일 2004. 7. 19)

